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해외통합증거금 신청자 '소 쿨! 소 이지!'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 신청자를 위한 '소 쿨! 소 이지!(So Cool! So Easy!)' 이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별도의 환전 없이 보유 중인 원화와 외화(USD·JPY·HKD) 뿐 아니라 당일 매도한 국내주식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후 해당 통화로의 환전은 매매일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이벤트는 편리한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서비스 신청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후 해외주식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다이슨 선풍기(70만원 상당)를 3명에게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총 50억 규모 ELS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31호'는 홍콩항셍(HSCEI) 지수,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엄지 기자

미래에셋대우

ELS 1000억 발행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2일 2018년 상반기 글로벌 ELS 1000억 발행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미래에셋대우가 발행하는 글로벌 ELS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적 청약 금액 기준으로 골드바와 상품권을 제공한다.

누적 청약 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골드바 1돈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골드바 3돈을 지급하며 10억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골드바 10돈을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무역전쟁, 베어마켓 불러… 세계경제 빨간불"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

삼성증권 '짐 로저스 초청 세미나'

위기 겪은 2008년보다 부채 많아
한국, 향후 투자 활발한 국가될 것
달러화 보단 농수산물·중국 투자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로저스홀딩스의 회장인 짐 로저스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0~80년과 비교해 가장 나쁜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세계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76)가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뇌관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난 부채다. 다만 한국은 남북경협을 기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익사이팅(exciting)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 초청으로 방한한 로저스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경제 및 대북 경제협력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몇 년 내에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베어마켓 시작될 것"

비관적 전망의 근거는 무역전쟁이다. 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승자가 나온 적이 없을 뿐더러 금리인상과 맞물려 전 세계 증시가 베어마켓(bear market·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짐 로저스는 "도널드 트럼프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록 더 강한 무역전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된 적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실망시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그는 몇 년 이내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다. 특히 이번에 닥칠 위기는 70~80년 간 겪어온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부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는 "부채로 위기를 겪었던 2008년보다 현재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면서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된다"면서도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다"고 비관론을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향후 10~20년 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가 활발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짐 로저스는 "개방 후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망이고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80년 간 폐쇄된 상태였던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보고싶을 것"이라며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짐 로저스는 "아직 확실한 수혜기업을 찾지 못했다"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 투자의 기회는 있다. 또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는 자산분배 전략이 가장 주효하다. 이에 대해 그는 달러화보다는 농수산물, 중국 투자를 유망하게 봤다. 하지만 본인이 잘 모른다면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짐 로저스는 "요즘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오랜기간 농산물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러시아 농산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업분야는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만큼 관련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된다"며 "투자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산배분 전략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올 여름 '재건축 분양대전'… 서초·반포·광명 등 '눈길'

7~8월 전국에 8847가구 분양
현대·삼성·대우 등 3파전 돌입

올해 들어 부동산규제 및 지방선거 등으로 연기됐던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우성1', '반포 삼호가든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경기도 광명 주공4차를 재건축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 최대 관심대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 8월 전국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13개 단지, 8847가구다. 이 중 2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 단지 4402가구(일반861가구) ▲경기 4개 단지 2817가구(일반834가구) ▲인천 1개 단지 244가구(일반102가구) ▲강원 1개 단지 567가구(일반388가구) ▲경남 1개 단지 817가구(일반275가구) 등이다.

이번 재건축 분양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등이 3파전으로 진행돼 더욱 흥미롭다.

우선 대우건설은 이달 철산주공4재건축 단지인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05㎡, 798가구 중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7호선 철산역이 도보 5분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가깝다.

삼성물산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우성1'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단지로 인근에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835가구 중 50~132㎡ 21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혜림건설은 7월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5구역주택을 재건축하는 '약사뉴타운 모아엘가 센텀뷰' 59~84㎡, 567가구 중 38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양은 7월 성남시 중원구 금광3구역을 재건축 하는 '성남 금광3구역 한양수자인' 40~74㎡, 711가구 중 2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8호선 단대오거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우건설 김형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우건설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직원과 식사데이트'

대우건설은 김형 사장이 7~8월 동안 6회에 걸쳐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CEO(최고경영자)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데이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사장은 본사의 본부·실별 대리·사원급 젊은 직원과 구내 식당 및 인근 레스토랑에서 런치데이트, 치맥데이트를 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과의 소통에 먼저 다가가겠다"고 밝힌 뒤 이번 행사를 직접 제안했다.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바라는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사장이 앞으로도 현장과 본사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달 울산 S-Oil RUC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H투자증권, 연 2.5% 발행어음 판매 시작

목돈 마련이 쉽도록… 수익률 유리
적립형·약정형 등 라인업 다양화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이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의 판매 개시 첫 날인 2일 여의도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 NH QV 발행어음 1호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자산부채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 발행어음 수익률을 확정하고, 2일부터 전국 지점에서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발행어음을 시장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 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쉽도록 매월 일정금액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상품인 NH QV 적립형 발행어음의 경우는 연 2.50%(세전)로 수익률이 유리하다.

또한 약정형 발행어음의 1년 만기 수익률은 연 2.3%(세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 2.10%(세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1.60%(세전)로 적용된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NH QV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은 연 1.55%(세전)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발행어음은 매수 시점에 수익률이 정해지는 약정형 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7월 2일부터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김문호 기자 kmh@